

강팀 신시내티의 1번 우승청부사...신수 확 핀다



추신수가 클리블랜드를 떠나 신시내티에 새 등지를 들었다. 거취가 확정된 만큼 이제 관심은 그의 WBC 대표팀 합류 여부다. 일단 에이전트 스킷 보라스는 불참의사를 전한 상태다. 스포츠동아DB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 STORY

| 추신수, 도전과 과제

시애틀-클리블랜드 이어 세번째 ML 유니폼 신시내티 WS 우승 갈증...유망주 내주고 영입 구단·선수·팬 자긍심 높고 팀 분위기도 달라 1번타자 중책...수비 위치 중견수로 옮겨 부담

자극심 강한 전통의 명문이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강팀이다. 추신수(30)가 12일(한국시간) 클리블랜드에서 트레이드된 신시내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팀이다. 특히 수비 포지션도 우익수에서 중견수로 옮겨야 한다.

FA(프리에이전트) 자격을 단 한 시즌 앞두고 이적한 추신수에게 2013년은 미래에 대한 차분한 준비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소화하며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시기다. 추신수는 2006년 시애틀에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됐다. 그리고 풀타임 메이저리거로 자리 잡았고, 팀 내 최고타자 중 한 명이 됐다. 클리블랜드는 대표적인 스포츠마케팅 구단이다. 또 추신수가 뛰고 있을 때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니었다. 계속해 유망주를 키워가며 팀을 재건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슈퍼스타보다는 젊은 선수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추신수의 팀 내 위상도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신시내티는 다르다. 일단 1882년 창단(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된 유서 깊은 팀이다. 통산 월드시리즈 우승 5회, 준우승 4회를 자랑한다.

통산 4256안타의 주인공 피트 로즈와 약물의 도둑 없이 600홈런을 날린 켄 그리피 주니어 등 수많은 스타가 뛰었다. 1990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오랜 침체를 겪었지만, 2010년부터 강팀으로 거듭났고 올해도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1위(97승65패)를 차지했다.

그만큼 구단과 선수, 팬 모두 자긍심이 높다. 외

● 추신수 메이저리그 연도별 성적

팀	연도	경기	타율	안타	홈런	타점	도루
시애틀	2005	10	0.056	1	0	1	0
시애틀~	2006	49	0.280	44	3	22	5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	2007	6	0.294	5	0	5	0
	2008	94	0.309	98	14	66	4
	2009	156	0.300	175	20	86	21
	2010	144	0.300	165	22	90	22
	2011	85	0.259	81	8	36	12
	2012	155	0.283	169	16	67	21
계	8시즌	699	0.289	738	83	373	85

야수 유망주 드루 스텝스, 유격수 디디 그레고리우스를 포기하고 추신수를 영입한 이유도 월드시리즈 우승과 자존심 회복을 위한 열망 때문이었다. 월트 자케티 신시내티 단장은 "우리는 1번타자에 항상 갈증이 있었다. 추신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커다란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수비도 뛰어나다. 중견수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시내티에는 올 시즌 34홈런을 친 우익수 제이 브루스(25)가 있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타율 0.252) 워낙 파괴력이 뛰어나 혼란을 일으키는 불박이 우익수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통산 중견수로 10경기를 뛰었다. 외야수비는 내야에 비해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중견수는 우익수에 비해 수비범위가 매우 넓다. 올 시즌 가능성을 보여준 1번 타순에서도 역시 시즌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1번은 가장 많이 타석에 서기 때문에 타격감 유지가 중요하다.

한편 추신수는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은 3번째 한국인 선수가 됐다. 봉중근(LG)이 2004년, 김선우(두산)가 2006년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었다. 공교롭게도 신시내티는 봉중근과 김선우에게 메이저리그 마지막 팀이었다. MLB.com 기자

130년 전통의 강호...내년에도 가을잔치 OK

■ 신시내티 레즈는 어떤 팀?

최근 3년간 2차례나 NL 중부지구 우승 강팀 보토 등 강타자 즐비...선발·불펜 마운드 막강



추신수(30)가 이적한 신시내티 레즈는 1882년 창단돼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팀이다. 팀 통산 내셔널리그 우승 9회, 월드시리즈 우승 5회를 거머쥐었다. 마지막 월드시리즈 우승은 4전승으로 오글랜드를 누른 1990년. 올 시즌에도 97승65패로 세인트루이스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비록 디비전시리즈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리버스스윙(2연승 후 3연패)을 당하며 리그 챔피언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지만 최근 3년간 2차례 지구 우승을 이루는 등 1990~2000년대의 암흑기를 지나 강팀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다.

신시내티를 대표하는 선수는 조이 보토다. 2007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1루수 보토는 올 시즌 부상으로 111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7·14홈런·56타점에 그쳤지만, 현역 선수 중 통산 타율 5위에 올라있는 강타자다. 추신수와 테이블세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2루수 브랜든 필립스 역시 골드글러브를 3차례나 차지했다.

선발진은 막강하다. 올 시즌 19승(9패·방어율 2.78)을 기록한 조니 쿠에토를 비롯해 브론슨 아로

요(12승10패·방어율 3.74), 호머 베일리(13승10패·방어율 3.68), 매트 레이토스(14승4패·방어율 3.48) 등이 포진해 있다. 아로요의 경우 추신수가 클리블랜드 시절 전직관계(통산 타율 0.571·4홈런)를 형성했지만 한술밥을 먹게 되면서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가 됐다. 지구우승을 이끈 불펜의 힘도 대단하다. 올 시즌 불펜 방어율이 2.65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였다. 양질의 불펜요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추신수가 그토록 꿈꾸던 포스트시즌 출전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재원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추신수·류현진한테 WBC 참가여부 직접 듣고 이달말 결정"

류중일 감독 등 대표팀 코칭스태프 상견례

"넣든지, 빼든지 12월 말까지 결정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12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위원회(KBO) 5층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류중일 감독을 비롯해 양상문 수석코치, 한용덕 투수코치, 박정배 김한수 타격코치, 김동수 배터리코치, 유지현 수비·주루코치 등 코칭스태프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KBO 김인식 기술위원장과 윤동균 기술위원, 유남호 전력분석팀장도 동석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대표팀 선수 교체였다. 이날 여겨 부상 중인 김광현(24·SK)이 3개월짜리 진단서를 대표팀에 제출했다. 최근 류현진(25)은 LA 다저스와 입단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진출에 성공

했고, 추신수(30)는 이날 신시내티로 트레이드되는 신분변화를 겪었다.

류 감독은 회의를 마친 뒤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류현진 추신수 김광현을 대표팀 명단에 넣든지, 빼든지 올해 안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이들을 교체하면 새로 대표팀에 발탁되는 선수도 몸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며 "(추신수·류현진) 에이전트가 불참의사를 밝혔지만 본인 입을 통해 정확한 의사를 전달받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13일 귀국하는 류현진은 한용덕 코치가 직접 만나고, 추신수는 KBO에서 연락하기로 했다. 류 감독은 "12월 말까지 50명 예비 엔트리를 다시 짜고, 내년 1월 16일 유니폼 발표회 때까지 28명 예비 엔트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ang



연속 마셔도
처음처럼
멀쩡해야 하는
남자이기에

연말연시
보험처럼 마셔라!



남자들의차
남자마음까지 생각하는
핫개차

밤새 마셔도
이슬처럼
예뻐야 하는
여자이기에

여자들이
보험처럼 마셔라!



여자들이마음까지 생각하는
핫개차